

목차

엔트런스	1
전시실 1	2
전시실 2	29

전시 내용은 변경하고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엔트런스

기타큐슈 문학의 도시

기타큐슈는 풍요로운 자연과 풍토 속에서 확고한 문예의 토양을 길러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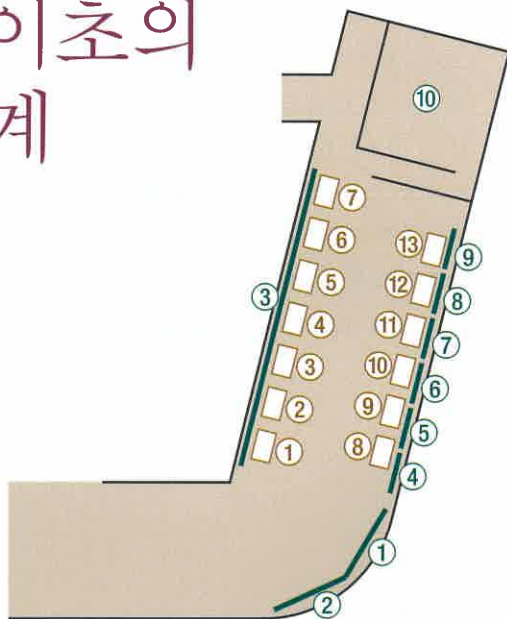
「꽃과 용」의 와카마츠, 「무호마츠」의 코쿠라 등, 시내 곳곳에 명작의 무대가 있고, 연고된 비석이 남아 있다. 마츠모토 세이초를 비롯하여 아쿠타가와상・나오키상 수상작가 등 일본을 대표하는 많은 문인들을 배출하여 다양한 문예 장르에서 활약한 선인들의 정열을 계승해 온 도시 기타큐슈시.

문학의 도시는 지금도 숨쉬고 있다.



전시실 1

마츠모토 세이초의 세계



① 전력으로 시대를 질주한 거인 마츠모토 세이초

마츠모토 세이초는 모든 규범을 초월한 작가이다. 일본 문학사상 처음으로 출현한 다양하고도 명확한 개성을 가진 작가라 할 수 있다.

이 상설전에서는 마츠모토 세이초의 각 분야의 실적을 소개하고 그 개인사 및 배경이 된 시대사를 전시하고 있다. 시대와 성실하게 마주하고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정열을 불태운 거대한 작가가 발한 빛의 여운이 여기에 있다.

② 마츠모토 세이초 작품의 계통도

논픽션

◆ 고대사

「고대사의 의문」「불의 회로」「불의 길」「세이초 통사」「세이초 고대유기 요시노가리와 야마타이국」「고 풍토기」「사설 고 풍토기」

◆ 근현대사

「일본의 검은 안개」「현대 판료론」「쇼와사(昭和史) 발굴」「2·26 사건」「2·26 사건=연구자료」

◆ 자전·에세이

「반생의 기(半生の記)」

◆ 자전적 소설

「부계의 손가락(父系の指)」

픽션(소설)

◆ 역사시대소설

「무숙인 별부」「아지랭이 도화(그림)」「텐포(에도말기) 도록」「사설·일본 합전담」「서해도담기」

◆ 평가전기소설

「어느「코쿠라 일기」전」「두 의관전(양상 모리 오가이)」

◆ 현대소설

「사이코 지폐」「어느「코쿠라 일기」전」「풍설 단비」「(斷碑)」「파도의 탐」「짐승의 길」「사막의 소금」「꽃의 길」

◆ 추리소설

「잠복」「점과 선」「영의 초점」「제로의 초점」「검은 복음」「구형의 황야」「모래 그릇」

마츠모토 세이초와 그 시대



- ③ 1909 12월 21일, 후쿠오카 키쿠군 이타비즈무라 (현 기타큐슈시 코쿠라키타구)에서 탄생. 본명은「清張(키요하루)」.
- 1910 조부모를 의지하여 일가는 시모노세키시 구단노우라로 이사.
- 1913 일가는 시모노세키시 타나카마치로 이전.
- 1916 시모노세키시 세이가 진조소학교에 입학.
- 1917 코구라시로 이주, 텐진지마 진조 소학교에 전학.
- 1922 코구라시립 이타비즈 진조고등소학교 (이후 키요미즈 소학교) 고등과에 입학.
- 1923 부친이 코구라시 콘야마치에 작은 음식점을 개업함.
- 1924 코구라시립 이타비즈 진조고등소학교 고등과 졸업. 카와키타 전기기업사 코구라출장소에서 급사로 일함. 이 시기부터 문예서를 즐기기 시작함.
- 1927 불황으로 인해 카와키타전기 코구라출장소가 폐쇄됨에 따라 실직. 야하타제철 및 토요도기의 문학을 애호하는 공원들과 교류를 시작.
- 1928 모친의 권유로 석판인쇄의 견습직공으로서 코구라시 타카사키 인쇄소에 취직. 이어 다른 인쇄소에서 견습생으로 근무.
- 1929 3월, 문학동료로부터 입수한 프롤레타리아 문예잡지「전기」등을 읽었다는 이유로 코쿠

라 경찰서에 검거되어 수감일간 유치됨.

- 1930 징병검사에서 제2 등증 보충병 인증.
- 1931 근무하던 인쇄소가 도산, 타카사키 인쇄소로 복귀. 2월 8일, 조모 카네 사망. 83세.
- 1933 인쇄공기술을 더욱 수련하기 위해 6개월간 후쿠오카시 시마이세이카도 인쇄소에서 견습생 수업.
- 1934 코쿠라의 타카사키 인쇄소로 복직.
- 1936 11월 18일, 사가현인·우치다 켄지로의 5녀 나요와 결혼.
- 1937 2월, 타카사키 인쇄소를 퇴직, 자영업을 시작함.
- 가을부터, 코쿠라의 아사히신문 큐슈지사의 광고 밑그림을 담당.
- 1938 1월, 장녀 탄생.
- 1939 아사히신문 큐슈지사 광고부 촉탁으로 임명됨.
- 1940 아사히신문 서부본사 광고부 상근 촉탁으로 임명.
- 3월, 장남 탄생.
- 1942 6월, 차남 탄생.
- 1943 1월, 아사히신문사의 정사원이 됨.
- 10월, 3개월의 교육소집을 받고 쿠루메의 제 56 사단 보병 제 148 연대에 입대.
- 1944 6월, 임시소집을 받고 쿠루메의 제86 사단 보병 제 187 연대 이등병으로 입대, 제78 연대 보충대로 전속. 패전까지 1년간을 위생병으로 복무. 입대직후 조선에 파견되어 경성 (현재의 서울) 시외의 용산에 주둔함. 일등병으로 진급. 가족은 사가현으로 피난.
- 1945 패전을 조선 전라북도 정읍에서 맞이함.
- 10월, 본국송환으로 사가현에 귀가. 아사히신문사 복직, 코구라시 쿠로하라의 무기창에서 일하는 공원사택이었던 집을 구입하여 주거지로 정함.
- 1946 7월, 3남 탄생.
- 1948 아사히신문 서부본사 광고부 의장계에 근무하면서 도안가(디자이너)로서도 활약.
- 1949 아사히신문 서부본사 광고부 의장계 주임으

- 로 승진.
- 1950 12월, 「주간 아사히 "백만인의 소설"」에 응모한 「사이고 지폐」가 3등에 입선.
- 1951 「사이고 지폐」가 제25회 나오키상 후보작이 됨.
- 1952 「기억」「어느 「코쿠라 일기」전」을 「미타문학」에 발표. 일본선전미술회 큐슈지구 위원 이 되어 자택에 동 회 코쿠라사무소를 둠.
- 1953 1월, 나오키상 후보 작품이 된 「어느 「코쿠라 일기」전」이 아쿠다가와상 선고위원회에 회부되어 27년도 하반기 제28회 아쿠다가와상을 수상.
- 12월 1 일자로 아사히신문 도쿄본사에 전근. 스기나미구 오기쿠보의 숙모 집에 기숙함.
- 1954 7월, 도쿄도 네리마구 세키마치로 이사. 가족을 상경시켜 동거.
- 1955 12월 19일, 모친·타니 사망. 78세.
- 1956 5월, 아사히신문사를 퇴직, 창작 활동에 전념함.
- 1957 2월, 「얼굴」로 제10회 일본 탐정작가클럽상을 수상. 같은 해 「점과 선」이 「여행」에 연재됨. 네리마구 카미사쿠지이에 신축 이전.
- 1958 「점과 선」「눈의 벽」이 출판되어 베스트셀러가 됨. 사회파 추리소설 붐이 일어남.
- 1959 7월, 「소설 제국은행사건」으로 제16 회 문예춘추 독자상 수상.
- 1960 「일본의 검은 안개」로 논픽션 분야에 진출. 「검은 안개」는 유행어가 됨.
- 1961 60년도 소득 작가부문 제1위가 됨. 스기나미구 카미타카이도에 자택을 신축, 9월에 이전. 같은 해 나오키상 선고위원이 됨.
- 1962 모교인 텐진지마 초등학교에 피아노를 기증. 3월 13일, 부친·미네타로 사망. 89세. 4월, 일본 문예가협회 이사로 선정됨.
- 1963 8월, 「일본의 검은 안개」「심층 해류」「현대 관료론」등의 업적에 의해 제6회 일본 저널리스트회의상을 수상. 일본 추리작가협회 이사장에 취임, 4기 8년간 역임.
- 1964 4월, 첫 해외여행.

- 7월, 「주간 문춘」에 「쇼와사(昭和史)발굴」을 연재 개시.
- 1965 4월부터 5월에 걸쳐 중동 취재여행.
- 1966 12월, 「사막의 소금」이 제5회 부인공론 독자상을 수상. 「고대사의 의문」을 「중앙공론」에 연재, 본격적인 고대사 집필영역의 확대.
- 1967 3월, 「쇼와사 발굴」등의 작품과 폭넓은 작가 활동에 대한 제1회 요시카와 에이지 문학상 수상.
- 1968 1월, 쿠바정부 주최 「세계문화회의」에 참석. 2월, 초대를 받아 북베트남 시찰여행, 4월, 팜반둥 수상과의 단독회견 실현. 7월, 십이지장전공으로 목막염을 유발, 도쿄여자의대 병원에 40일간 입원. 10월, 유럽 취재여행.
- 1969 5월, 라오스 「코끼리와 개미」(후 「코끼리의 흰 다리」로 개칭)의 취재여행. 연말, 가족과 함께 동남아시아 여행
- 1970 10월, 「쇼와사 발굴」을 중심으로 한 의욕적인 창작활동으로 제18회 기쿠치칸상 수상.
- 1971 4월부터, 「마츠모토 세이초 전집」 제1기 전 38권 간행 개시. 6월, 「부재가택 사건」이 제3회 소설현대 골든독자상에 선정됨. 같은 해, 일본 추리작가협회 회장에 취임. 2기 4년간 역임.
- 1972 10월, 젊은 연구자의 발표의 장으로서 「계간 현대사」를 창간.
- 1973 4월부터 5월에 걸쳐 이란, 터키, 네덜란드, 영국, 아일랜드 등 취재여행. 11월, 베트남 고대문화 시찰단 단장으로서 에가미 나미오 씨 등과 북베트남을 방문.
- 1974 3월, 첫 오키나와 여행. 5월, 「마츠모토 세이초 전집」 제1기 전 38권 완성.
- 1975 7월, 창가학회와 일본공산당과의 「화해」를 중재, 양자가 협정을 체결했다는 사실이 발표되어 세상을 놀라게 했다.
- 1976 마이니치신문사의 전국 독서여론조사에서

“좋아하는 작가”의 제1위에 뽑힘. 「고 풍토기」(이후 「사실 고 풍토기」로 개칭), 「세이초 통사」의 연재 개시 등, 고대사관련 집필량 증가.

- 1977 1월, 아사히신문사 주최 「야마타이국 심포지엄」의 구성·사회자로서 참가.
8월, 미국, 캐나다에 「하늘의 성」의 취재여행.
- 1978 2월, NHK 제28회 방송문화상 수상.
10월, 키리 프로덕션 창설.
7월 유럽, 8월~9월 이란, 연말에는 동남아시아 등 해외취재가 많았던 해 이란에서는 대지진과 팔레비 국왕 퇴진을 요구하는 반정부 데모를 목격.
- 1979 나오키상 선고위원을 자퇴.
- 1981 도쿄 국립박물관에서 열린 「쇼소인 전」을 위한 심포지엄에 참가.
- 1982 10월~11월, 유럽 취재여행.
11월, 「마츠모토 세이초 전집」 제2기 전 18권의 간행 시작됨.
- 1983 5월~6월, 아사히방송 특별 보도프로그램 「세이초, 밀교에 도전」의 취재반과 함께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
10월에는 동 취재반과 뉴델리, 마드라스, 캘커타 등을 순방.
- 1984 4월, 「마츠모토 세이초 전집」 제2기 전 18권 완결.
TV아사히의 「뉴 다큐멘터리 드라마 “쇼와” —마츠모토 세이초 사건에 도전」(전25회)을 감수, 스스로 해설자로서 출연.
5월~6월, 유럽 각지 취재여행.
9월, 키리 프로덕션 해산.
- 1985 작가생활 35주년을 계기로 「마츠모토 세이초 전」(아사히신문사·세이부미술관 주최)을 각지에서 개최.
6월, 영화·TV 기획 제작을 위한 「키리(안개)」기획을 설립.
9월, 10월 유럽 각지를 「안개의 회의」등 취재여행.
- 1986 3월, 마츠에시에서의 심포지엄 「동검·동탁·

동창 일괄매장의 수수께끼」에 참가, 종합사회를 맡음.

5월, 오스트리아, 체코슬로바키아, 영국에 「검은 피의 선무」 취재여행.

- 1987 7월, 8월에 걸쳐 장편 「붉은 빙하」(이후 「붉은 빙하기」로 개칭)와 「시성의 여행자」 취재를 위해 유럽여행.
10월, 프랑스 그레노블에서 개최된 제9회 「세계 추리작가회의」에 참석, 강연.
- 1988 11월 병으로 도쿄여자의대병원에 입원. 이 시기부터 시력 저하에 시달리게 됨.
- 1989 오랜만의 단편 「이탄지」가 문예서평에서 화제가 됨.
요시노가리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발언과 다량의 집필.
2월, 도쿄여자의대 병원에 입원, 전립선 수술을 받고 순조롭게 회복.
6월, 「폴의 길」 취재를 위해 유럽 취재여행.
8월, 녹내장 수술.
- 1990 1월, 89년도 아사히상 수상.
6월, 영국, 독일 취재여행.
- 1991 작가활동 40주년을 기념하여 민간방송 4개국이 12개 작품을 드라마화, 4월부터 매월 1 작품을 전국 넷으로 방영했다.
12월, 자신이 근무한 아사히신문사의 전용기로 작품의 무대가 된 각지를 상공으로부터 시찰. 이것은 본인이 염원했던 하늘 여행이었다.
- 1992 「1952년 일본항공기 「격추」 사건」 출판 직전인 4월 20일, 뇌출혈로 도쿄여자의대 병원에 입원. 수술은 성공, 요양생활을 계속하던중 7월하순 병증세가 급변, 간장암으로 판명.
8월 4일 사망. 향년 82 세. 10일, 「고별회」가 아오야마 장의장에서 개최되어 1100여명의 인사가 참석하여 이별을 아쉬워함. 계명은 청한원석문장.

[전시품]

①

[教科書]

当時の地理の教科書

[교과서]

당시의 지리 교과서

[円本]

当時の代表的円本

昭和初期の円本ブームの中、愛読した『明治大正文学大全集』

1926(昭和元)年

[엔본 책]

당시 유행한 대표적인 1권 1엔책

쇼와초기 엔본 책이 붐이었던 당시 애독한 「메이지 타이쇼 문학대전집」

1926(쇼와 원년) 년

[文庫本]

進学がかなわなかった清張にとって、懐に入れた文庫本が何よりの慰めだった。「立川文庫」はこの頃の少年たちが夢中になった講談読物双書。

明治後期~昭和初期

[문고본 책]

진학을 할 수 없었던 세이초에게는 품안에 간직했던 문고본 책이 유일한 위로였다.

「타치카와문고」는 이 시기의 소년들이 열중한 이야기전집.

메이지 후기~쇼와 초기

[扇風機]

株式会社 川北電気製作所製

初の就職先となった川北電気小倉出張所で取り扱っていた扇風機

1923(大正13)年製造

[선풍기]

주식회사 카와키타 전기제작소 제품

첫번째 직장이 된 카와키타전기 코쿠라 출장소에서 취급하고 있던 선풍기

1923(타이쇼 13) 년 제조

〔川北電気企業社小倉出張所〕

[카와키타 전기기업사 코쿠라 출장소]

②

[十三歳の松本清張]

写真

板櫃尋常高等小学校(北九州市立清水小学校の前身)の集合写真。

1922(大正11)年、学制発布50周年を記念して撮影された。前列右から2人目が清張。

[13살 마츠모토 세이초]

사진

이타비즈 진조 고등소학교(현 기타큐슈시립 키요미즈 초등학교)의 전체사진. 1922(타이쇼 11) 년, 학교 제발표 50주년을 기념하여 촬영함. 전열 우측으로부터 두번째가 세이초.

[石版石]

当時の印刷用石版石

当時の画工は、厚みのある石版石(大理石)にトキ墨というインキと同じ脂肪性の墨を筆にして印刷物の原稿を描いた

1928(昭和3)年頃

[석판석]

당시의 인쇄용 석판석

당시의 화공은 두꺼운 석판석(대리석)에 토키 먹이라고 하는 잉크와 같은 지방성 먹과 붓으로 인쇄물의 원고를 그렸다

1928(쇼와 3) 년경

[小説研究十六講]

木村毅著

給仕時代に時間を見つけては読みふけた小説論。創作の方法、小説鑑賞の理論が豊富な引用で説かれている。何冊も持っていたが、左が昭和2,3年頃に購入し、出征するとき家族にかたく保存をいいつけたもの

1924(大正14)年

[소설연구 16강]

키무라 타케시 저

급사였던 시절, 틈틈이 시간을 내어 열심히 읽었던 소설론. 창작방법, 소설감상 이론을 풍부한 인용을 넣어 설명하고 있다. 몇권이나 가지고 있었는데 원편이 1927-28년경에 구입한 것으로서 임대시 가족에게 귀중하게 보존하도록 한 것

1924(타이쇼 14) 년

[風景画]

直筆の水彩画

昭和24年冬、父の故郷(鳥取県日野郡矢戸村)を訪れたときのスケッチ
1949(昭和24)年

[풍경화]

자필 수채화

1949년 겨울, 부친의 고향(돗토리현 히노군 야토무라)을 방문했을 때의 스케치

1949(쇼와 24)년

[『日本民俗学辞典』]

中山太郎著 1941年 梧桐書院・複製

本召集を受け、死を覚悟した清張は、愛着ある蔵書の散逸を惜しむあまり、急いで蔵書印を作り押印したという。

[「일본 민속학 사전」]

나카야마 타로 저 1941년 고토서원・복제

군대 본조집 영장을 받고 죽음을 각오한 세이초는 아끼는 장서를 잃게 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서둘러 장서도장을 만들어 날인했다고 한다.

[デザイン用具]

朝日新聞小倉時代に使用していた絵皿

1939(昭和14)年頃

[디자인 용구]

아사히신문 코쿠라 시절에 사용하고 있던 물감용 접시

1939(쇼와 14)년경

[朝日新聞社員写真帳]

西部本社 廣告部 部員

1944(昭和19)年1月発行

[아사히신문 사원 사진첩]

서부분사 광고부 부원

1944(쇼와 19)년 1월 발행

[軍隊手帳]

昭和18~20年にかけて、松本清張が所持していた物と同じ手帳

[군대 수첩]

1943~1945년에 걸쳐 마츠모토 세이초가 소지하고 있던 것과 같은 수첩

[出征前叔父に宛てた手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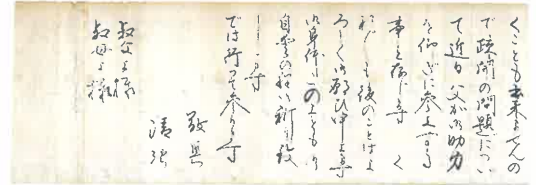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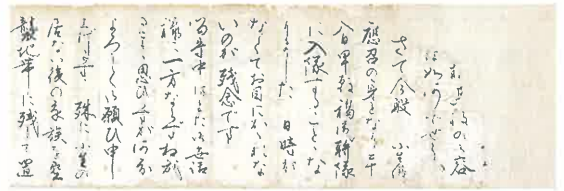
直筆

日付不明

[입대 전 숙부 앞으로 보낸 편지]

친필

날자 불명



[西郷札]

薩摩軍軍票

西南戦争に際し薩摩軍が発行した紙幣

1877(明治10)年発行

[사이고 지폐]

사츠마군 군표

서남전쟁에서 사츠마군이 발행한 지폐

1877(메이지 10)년 발행

[「西郷札」]

草稿 複製

1950(昭和25)年

[「사이고 지폐」]

초고 복제

1950(쇼와 25)년

[百科辞典]

富山房 國民百科大辭典

「西郷札」を書くきっかけとなった百科事典

赤線部分が西郷札の項目

[백과사전]

후간보 국민백과대사전
「사이고 지폐」집필 계기가 된 백과사전
붙은선 부분이 사이고 지폐 관련항목

[懸賞小説「百万人の小説」入選通知]

手紙 複写
「西郷札」三等一席入選を知らせる朝日文芸系の書面
1950(昭和25)年

[현상소설「백만인의 소설」입선 통지]

편지 복사
「사이고 지폐」3등 제1위 입선을 알리는 아사히 문예
계로부터의 서면
1950(쇼와 25)년

[朝日入選記事]

「週刊朝日」1950年12月24日号 複写
「百万人の小説」当選発表
1950(昭和25)年

[아사히 입선기사]

「주간 아사히」1950년 12월 24일호 복사
「백만인의 소설」당선 발표
1950(쇼와 25)년

[大佛次郎からの手紙]

複製
清張は直木賞の銓衡(選考)委員であった大佛次郎に「西郷札」掲載
誌を送った。その礼状。
作品の感想、「文体は沈静…始めて(ママ)のひとに珍しいと思ひまし
た」は興味深い。
1951(昭和26)年

[오사라기 지로로부터의 편지]

복제
세이초는 나오키상 선고위원인 오사라기 지로에게
「사이고 지폐」가 게재된 잡지를 보냈다. 이에 대한 답
례의 편지.
작품 감상, 「문체가 차분하고 … 신인으로서는 드문
일이라 생각합니다」라는 부분이 흥미롭다.
1951(쇼와 26)년

[木々高太郎からの葉書]

複製
「西郷札」掲載誌を送付したことへの礼状。
これが縁で、木々が編集していた「三田文学」に「記憶」と「或る『小

倉日記』伝」を發表。後者が芥川賞受賞作となった。
1951(昭和26)年

[키기 타카타로가 보낸 엽서]

복제
「사이고 지폐」게재잡지 송부에 대한 답례장.
이것이 인연이 되어 키기가 편집하고 있던 「미타문
학」에 「기억」과 「어느 「코쿠라 일기」전」을 발표. 후
자가 아쿠타가와상 수상작이 되었다.
1951(쇼와 26)년

[『西郷札』]

初版本
1955(昭和30)年11月30日

[「사이고 지폐」]

초판책
1955(쇼와 30)년 11월 30일

[転勤希望の手紙]

直筆
当時の朝日新聞東京本社広告部長 矢野伊三氏へ宛てた手紙。内
容は東京本社への異動についての助力依頼
1953(昭和28)年3月

[전근희망 편지]

친필
당시의 아사히신문 도쿄본사 광고부장 야노 이사미
씨에게 보낸 편지. 내용은 도쿄 본사에의 이동에 대한
협력 의뢰
1953(쇼와 28)년 3월

⑤

[第28回芥川賞正賞]

懷中時計
「或る『小倉日記』伝」により受賞
主催 財団法人 日本文学振興會
1953(昭和28)年2月20日

[제28회 아쿠타가와상 수상]

회중시계
「어느 「코쿠라 일기」전」으로 수상
주최 재단법인 일본문학진흥회
1953(쇼와 28)년 2월 20일

[芥川賞受賞記念のシガレットケース]

松本清張が銀座でつくり、関係者・知人に配ったもの
1953(昭和28)年

[아쿠다가와상 수상기념 시가렛 케이스]

마츠모토 세이초가 긴자에 주문 제작하여 관계자・지인에게 선물한 것
1953(쇼와 28) 년

[第28回芥川賞]

目録
「或る『小倉日記』伝」により受賞
主催 財団法人 日本文学振興會
1953(昭和28)年2月20日

[제28회 아쿠다가와상]

목록
「어느『코쿠라 일기』전」으로 수상
주최 재단법인 일본문학진흥회
1953(쇼와 28) 년 2월 20일



[第28回芥川賞受賞作掲載誌]

「文藝春秋」1953年 3月号
「或る『小倉日記』伝」
1953(昭和28)年

[제28회 아쿠다가와상 수상작 게재지]

「문예춘추」1953년 3월호
「어느『코쿠라 일기』전」
1953(쇼와 28) 년

[「或る『小倉日記』伝」初出誌]

「三田文学」1952年9月号
1952(昭和27)年

[「어느『코쿠라 일기』전」첫출판지]

「미타문학」1952년 9월호
1952(쇼와 27) 년

[火野葦平からの手紙]

複製
芥川賞受賞を喜ぶ手紙。
「芥川賞に殺されないやうにして頂きたい」とは、自身も芥川賞作家である葦平の、実感からくる助言ともとれる。
1953(昭和28)年

[히노 아시헤이로부터의 편지]

복제
아쿠다가와상 수상을 축하하는 편지.
「아쿠다가와상이란 중압에 지지말라」란 자신도 아쿠다가와상 작가인 아시헤이의 체험을 통한 조언이라 할 수 있다.
1953(쇼와 28) 년

[和田芳恵からの葉書]

複製
直木賞の有力候補だったことに触れ、「それがどうした風の吹きまはしか芥川賞で…おめでたう存じます」とある。
1953(昭和28)年

[와다 요시헤로부터의 엽서]

복제
나오키상의 유력 후보였던 점을 들어「그게 어떻게 된 영문인지 아쿠다가와상이라니 … 아무튼 축하합니다」라는 내용.
1953(쇼와 28) 년

⑥

[『点と線』新聞広告]

新聞紙全面広告 複写(カラージュ)
1000万部突破の記録など

[「점과 선」신문 광고]

신문 전면광고 복사(콜라주)
1000만부 돌파의 기록 등

[「点と線」の構想(手書きメモ)]

『松本清張短篇総集』1963年 講談社

[「점과 선」구상(자필 메모)]

「마츠모토 세이초 단편 총집」1963년 코단샤

[時刻表]

1956년 12月号 復刻版
佐山とお時が乗り込んだのが、15番線に停車中の18時30分東京発・博多行特急「あさかぜ」であった。

[시간표]

1956년 12월호 복각판
사야마와 오토키가 탄 것은 15 번선에 정차중인 18시 30분 도쿄발·하카타행 특급열차「아사카제」였다.

[「点と線」掲載誌]

「旅」1958년 1月号 最終回掲載号
1958(昭和33)年

[「점과 선」게재지]

「여행」1958년 1월호
마지막회 게재호
1958(쇼와 33)년

[清張直筆メモと「旅」掲載の挿画]

第二回〈情死体〉の原稿の裏には、清張直筆のラフスケッチがあり、「旅」に掲載された佐藤泰治の挿画はほぼ同じアングルで描かれている。

[세이초 자필 메모와 「여행」의 게재 삽화]

제2회 〈정사시체(情死体)〉의 원고 뒤에 그려진 세이초 자필의 스케치, 「여행」에 게재된 사토 타이지의 삽화는 거의 같은 앵글로 그려져 있다.

⑦ -----

[トラベラーズチェック]

直筆のサイン入り

[여행자수표]

기입된 자필 싸인

[カジノのチップ]

1984年、「霧の会議」取材のため訪れたフランスのドーヴィルのもの。ツヴァイクなど、愛読した外国作品への憧憬からカジノに興味をもったのだろうか

[카지노의 팁]

1984년, 「안개의 회의」 취재를 위해 방문한 프랑스 드 비르에서 가지고 온 것. 츠바이크 등 애독했던 외국작품에 대한 동경에서 카지노에 흥미를 가지게 된 것인가.

[パスポート]

1968년 2월 2일発行
1978년 6월 9일発行
上配は「KIYOHARU MATSUMOTO」
下記は「SEICHO MATSUMOTO」の署名で発行。
1978년 6월 9일発行
이란、파키스탄、방콕、香港への取材旅行に使用

[여권]

1968년 2월 2일 발행
1978년 6월 9일 발행
상기는 「KIYOHARU MATSUMOTO」
아래는 「SEICHO MATSUMOTO」의 서명으로 발행.
1978년 6월 9일 발행
이란, 파키스탄, 방콕, 홍콩에의 취재여행에 사용

[海外取材関連資料]

地図・パンフレット

[해외취재 관련자료]

지도·팜플렛

[取材に携行したカメラ]

Nikon F-501
国内を始め多岐にわたる海外取材にも、常に2台以上のカメラを携行した。

[취재에 휴대한 카메라]

Nikon F-501
국내를 비롯하여 다방면에 걸친 해외 취재에도 항상 2대 이상의 카메라를 휴대했다.

[海外から家族に宛てた手紙・ハガキ]

[해외로부터 가족 앞으로 보낸 편지·엽서]

마츠모토 세이초의 업적



④ 현대소설

1953년 마츠모토 세이초는 「어느 「코쿠라 일기」전」으로 아쿠타가와상을 수상.

사회의 한 구석에서 가족의 생활을 지켜야 했던 스스로의 청년시대를 투영한 초기의 단편 작품은 잔잔한 감동을 주는 명작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후의 현대소설 분야에서도 자유로운 착상과 사회의 암부를 조명한 독자적인 작품을 낳았다.

인생을 중층적으로 조명하여 완벽하게 표현한 사회 상황과 명확한 문체, 치밀한 구성으로 시대를 그린 새로운 문학의 영역을 확립하였다.

「사이고 지폐」 「어느 「코쿠라 일기」전」 「단비」 「파도의 탐」 「짐승의 길」 「사막의 조금」 「풀의 길」

⑤ 추리소설

마츠모토 세이초는 수수께끼를 풀어가는 것을 주체로 한 종래의 추리소설 형태에 범행의 동기와 사회적 배경이란 두 개의 요소를 부가시켰다는 점에 공적이크다. 즉 범죄에 있어서 인간의 심리를 철저하게 추구하고, 또 사회가 그러한 인간을 낳고 있음을 밝혔다. 괴물이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극히 보통 인간 속에 잠재하고 있는 악의 공포를 그린 「점과 선」 간행 후, 전대미문의 붐이 일어났다. 이 사회파 추리소설의 붐 속에서 많은 우수한 작가가 등장했고 「포스트 세이초」라 불리는 추리소설의 유행을 만들어 냈다.

「잠복」 「점과 선」 「제로의 초점」 「검은 화집」 「구형의 황야」 「모래 그릇」 「신들의 난심」

⑥ 역사소설과 시대소설

마츠모토 세이초는 「사이고 지폐」를 통해 작가로서 인정을 받은 후,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그 다양한 잠재능력은 먼저 역사소설의 형태로 나타났다. 그의 작품은 단순한 과거의 역사 이야기가 아니다. 「당시의 제도하에서 살아가는 인간을 그리는 것은 현대의 조직속에 살아가는 인간을 그리는 것이기도 하다」라고 했듯이 역사소설에 그려진 권력구조나 부조리는 강렬한 현대사회에 대한 비판이기도 했다.

「무숙인 별장」 「아지랑이 도화 (그림)」 「텐포 (에도말기) 도록」 「사설 · 일본 합전담」 「서해도담기」

⑦ 현대사

마츠모토 세이초가 「일본의 검은 안개」를 발표한 충격은 컸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까지 금기로 생각해 왔던 미군점령시대의 암부에 빛을 넣어 이 시대를 날카롭게 파헤치고 있는 작가의 모습을 보았다. 다층적인 작가활동을 전개한 마츠모토 세이초의 특기해야 할 점은 역사에 대한 강한 관심이었다. 복잡한 정치사회 정세를 배경으로 한 현대사분야에서는 특유의 역사 감각을 바탕으로 한 취재 · 조사와 자료의 해석 및 분석을 통해 현대사의 진실에 접근하려고 시도했던 것이다.

「일본의 검은 안개」 「현대 관료론」 「쇼와사 (昭和史) 발굴」 「2·26 사건」 「2·26 사건=연구자료」

⑧ 고대사

마츠모토 세이초는 과신에 빠진 학계의 편견을 싫어하고 소외된 학도에게는 따뜻한 배려의 눈길을 주었다. 그러니만큼 학문지상주의 밖으로부터 발신하는 자설에 대한 학계의 반응을 항상 주시하고 있었다. 학문에는 「증명」과 「논리」가 필요하다. 역사학계나 고고학계가 「증명」의 면에서 인정한 마츠모토설은 적지 않으나 국민의 관심과 감각을 배경으로 한 「논리」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그 이상으로 컸다.

「고대사의 의문」소설 「불의 길」 「세이초 통사」
「세이초 고대유기 요시노가리와 야마타이국」
「사설 고 풍토기」심포지엄과 마츠모토 세이초

⑨ 마츠모토 세이초 영화작품 목록

마츠모토 세이초 소설의 매력은 튼튼한 스토리 구조에 있다. 즉 스피드감 넘치는 전개와 그 스토리에 따라 절묘하게 표현된 인간과 풍경묘사,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이 만들어내는 소설적인 리얼리티에 있다. 풍부한 시각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는 마츠모토 세이초의 소설 세계는 처음부터 영상적이었다. 발표되는 소설이 항상 영화인의 관심을 끌고, 속속 영화화된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흐름이었다.

원작과 영화는 다른 것이라고 한 발짝 거리를 두고 바라보고 있던 작가가 스스로 회사를 세워서까지 제작하려고 한 작품이 있었다. 그것이 코쿠라를 무대로 한 「검은 바탕의 그림」이었다. 마츠모토 세이초가 생존하는 동안 영상화하고자 한 이 작품은 각가지 애로에 부딪쳐 끝내 실현되지 못했다.

「얼굴」 「잠복」 「점과 선」
「검은 화집」 「어느 샐러리맨의 증언」 「제로의 초점」
「안개의 깃발」 「모래 그릇」

[전시품]

⑧

[[「或る『小倉日記』伝」]]

原稿 複製

財団法人 日本近代文学館 所蔵

[[「어느 「코쿠라 일기」전」]]

원고 복제

재단법인 일본 근대문학관 소장

[[「波の塔」「砂漠の塩」掲載誌]]

「女性自身」1960년3월30일호

「婦人公論」1965년10월호 12월호

女性雑誌にも次々と力作を連載し、女性路線を開拓する

[[「파도의 탑」「사막의 소금」게재지]]

「여성자신」1960년 3월 30일호

「부인공론」1965년 10월호 12월호

여성잡지에도 속속 역작을 연재하여 여성 팬을 개척함

[[「黒革の手帖」]]

原稿

[[「검은 가죽의 수첩」]]

원고

[[「二人の醫官傳」]]

原稿・ゲラ

当初「二人の醫官傳」の題名で書きはじめたが、作品発表時には「二醫官傳」に改めた。また、単行本収録の際に「両像・森鷗外」に改題している

1985 (昭和60)年

[[「두 명의 의관전」]]

원고・교정용

당초 「의관전」이란 제목으로 쓰기 시작했으나 작품 발표시에는 「두 의관전」으로 고쳤다. 다시 단행본 수록시에 「양상(두사람)・모리 오가이」로 개칭했다
1985 (쇼와 60) 년

⑨

[[「点と線」]]

原稿

1957 (昭和32)年

[[「점과 선」]]

원고

1957 (쇼와32)년



[[「点と線」挿画]]

掲載誌「旅」より挿絵

佐藤泰治氏による挿絵

1958 (昭和33)年

[[「점과 선」삽화]]

게재지 「여행」의 삽화
사토 타이지 씨에 의한 삽화
1958(쇼와 33) 년

[[「黒い福音」]]

新聞記事 複写(カラーージュ)
スチュワーデス殺人事件を報じる新聞記事
1959(昭和34)年

[[「검은 복음」]]

신문기사 복사(컬라주)
스튜어디스 살인사건을 보도한 신문기사
1959(쇼와 34) 년

[[「黒い画集」掲載誌]]

「週刊朝日」1958年11月30日号

[[「검은 화집」게재지]]

「주간 아사히」1958년 11월 30일호

[[「球形の荒野」]]

原稿
1959年、執筆量の激増から書癪を患い、速記者に口述した原稿に加筆する方法をとった。これは速記者が原稿用紙に清書した後、自筆で書き込みをしたもの
1960(昭和35)年

[[「구형의 황야」]]

원고
1959년, 집필량 급증으로 인한 서경(창작마비)을 알게 되어 속기자에게 구술로 기록시킨 원고에 가필하는 방법을 취했다. 이것은 속기자가 원고용지에 정서한 후, 직접 가필한 것
1960(쇼와 35) 년

[[「霧の会議」]]

創作ノート 複写
小説の種となるような短いメモや作品構成のためのメモが書かれているノート

[[「안개의 회의」]]

창작 노트 복사
소설의 소스가 된 짧은 메모나 작품 구성을 위한 메모 노트

[[「天保図録」挿画]]

風間完 画 複製

[[「텐포(에도말기)의 도록」삽화]]

카자마 칸 그림 복제

[[「天保図録」関連資料]]

「天保武鑑」
コレクション

[[「텐포(에도말기)의 도록」관련자료]]

「텐포 무감」
컬렉션

[[「彩色江戸切絵図」]]

「八町堀細見繪圖」
「八丁堀 築地 日本橋南之圖」
コレクション

[[「채색 에도 키리에(종이를 오려 대지에 붙여 만든 그림)도」]]

「핫초보리 호소미 회화도」
「핫초보리 츠키지 니혼바시남지도」
컬렉션

[[「西海道談綺」]]

原稿
1976(昭和51)年

[[「서해도담기」]]

원고
1976(쇼와 51) 년

[[「江戸綺談 甲州靈嶽党」]]

原稿・ゲラ
1992(平成4)年

[[「에도기담 코슈영악당(甲州靈嶽党)」]]

원고・교정용
1992(헤세이 4) 년

[『日本の黒い霧』関連資料]

新聞記事 複写(コラージュ)

作品の基となった事件の新聞記事。これ以後ノンフィクションの分野にも本格的に進出し、以後「黒い霧」は流行語となった

[「日本の 검은 안개」관련자료]

신문기사 복사(콜라주)

작품의 계기가 된 사건의 신문기사. 이로부터 논픽션 분야에도 본격적으로 진출, 이후 「검은 안개」는 유행어가 되었다

[『日本の黒い霧』関連資料]

[「日本の 검은 안개」관련자료]

[『昭和史発掘』関連資料]

『二・二六事件』新聞号外

17人の死刑判決を報じる号外

1936(昭和11)年7月7日

[「쇼와사(昭和史)발굴」관련자료]

「2·26 사건」신문 호외

17명의 사형판결을 알리는 호외

1936(쇼와 11)년 7월 7일

[『二・二六事件』関連資料]

贋起趣意書 複製

事件当日、青年将校らが配布した物

1936(昭和11)年2月26日

[「2·26 사건」관련자료]

필기취지서 복제

사건 당일, 청년 장교들이 배포한 것

1936(쇼와 11)년 2월 26일

[古代史カード]

日本史、東洋史の研究書を読んで要点を自分なりにまとめ、執筆に役立てた。絵や地図を写したものもある

[고대사 카드]

일본사, 동양사의 연구서를 읽은 요점을 자기 나름대로 정리하여 집필에 활용했다. 그림이나 지도를 복사한 것도 있다

[「火の路」創作ノート]

複製

B5の原稿用紙タイプのノートには「登場人物(人名表)」や、「新考察」としてゾロアスター教と『楚辞』、イランの人面獣身と『山海経』、『楚辞』の共通点を指摘するメモが記されている。

[「불의 길」창작 노트]

복제

B5 원고용지 크기의 노트에는 「등장인물(인명표)」, 「새로운 고찰」로서 조로아스터교와 「초사」, 이란의 인면수신과 「산해경」, 「초사」의 공통점을 지적한 메모가 기록되어 있다.

[邪馬台国シンポジウム]

パンフレット

1977(昭和52)年1月

[야마타이국 심포지엄]

팜플렛

1977(쇼와 52)년 1월

[銅鐸]

コレクション

[동탁]

컬렉션

[作家活動40年記念ドラマ]

関連資料

1991(平成3)年

[작가활동 40주년 기념 드라마]

관련자료

1991(헤세이 3)년

[古鏡]

方格規矩鏡(後漢時代)

コレクション

[고대 거울(고경)]

방격규거경(후한시대)

컬렉션

[[『球形の荒野』]]

映画台本

1975(昭和50)年

[[『구형의 황야』]]

영화 대본

1975(쇼와 50)년

[[映画パンフレット]]

『迷走地図』『疑惑』『天城越え』『わるいやつら』

[[영화 팜플렛]]

「미주 지도」「의혹」「아마기 고개」「나쁜 녀석들」

[[『黒地の絵』]]

シナリオ

[[『검은 바탕의 그림』]]

시나리오

[[『砂の器』]]

映画パンフレット・サウンドトラックレコード盤

1974(昭和49)年

[[『모래 그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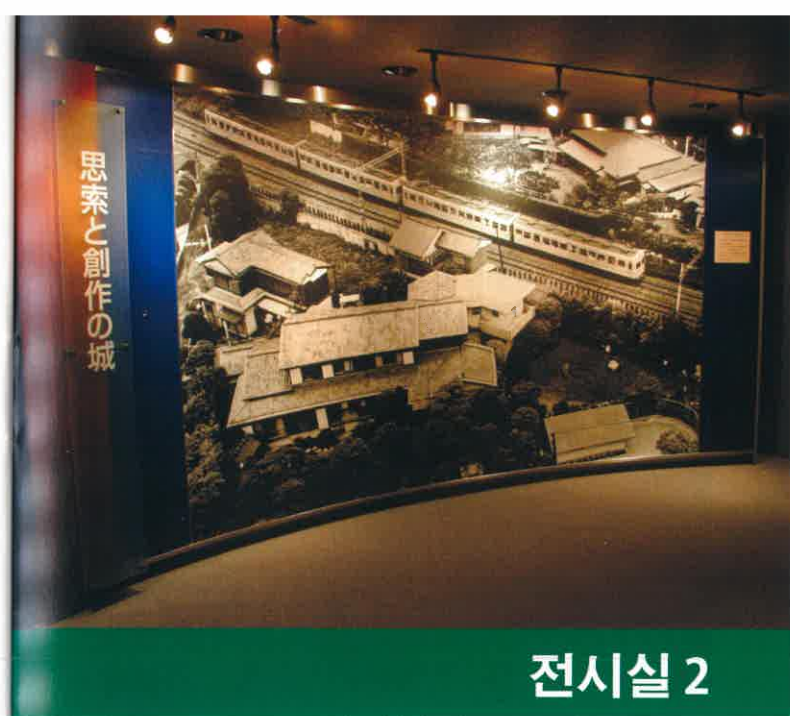
영화 팜플렛・사운드트랙 레코드판

1974(쇼와 49)년

추리극장

⑩ 「일본의 검은 안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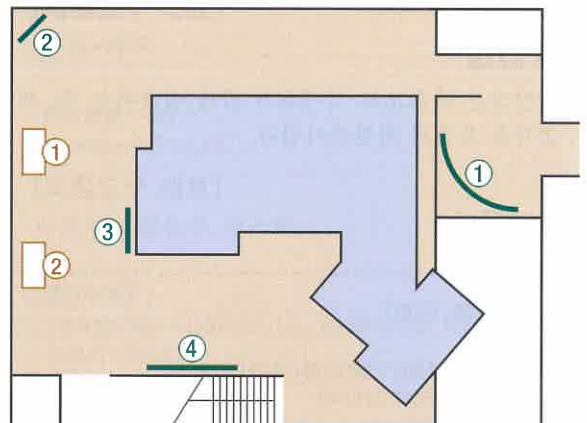
—요원한 조사 (照射)—



전시실 2

사색과 창작의 성

1F



① 상공으로부터 내려다 본 마츠모토 저택

1968년, 상공 촬영한 도쿄도 스기나미구, 마츠모토 저택.

왼쪽에는 케이오 테이트전철 이노카시라선이 달리고 있다. (회사명은 촬영 당시)

뜰에 서있는 인물은 세이초 씨. 그 오른쪽에는 전시실 1 입구에 있는 「토다이사(東大寺)의 초석」이 보인다.



② 사색과 창작의 성

「사색과 창작의 성」은 1992년 8월4일, 마츠모토 세이초가 서거한 당시 그대로 마츠모토 세이초가 확실히 존재했던 그 공간을 잘라내어 그의 탄생지로 옮긴 것이다.

2층 건물의 서고는 지킬줄 모르는 사색과 창작을 뒷받침한 서적들로 증축과 개축을 거듭하여 많은 서가 들어선 공간은 마치 미로와 같다.

③ 응접실

응접실은 마츠모토 세이초가 밖과 접촉하는 즉, 세이초작품 유통의 최전선이었다.

[전시품]

①

〔自画像を描いた皿〕

益子焼

栃木県に取材旅行で訪れた時に制作した皿

1980 (昭和55) 年 2月24日

〔자화상을 그린 접시〕

마시코 도자기

토치기현에 취재 목적으로 방문했을 때 제작한 접시
1980 (쇼와 55) 년 2월 24일

〔年賀状〕

直筆のハガキ

〔연하장〕

자필의 엽서

〔画帳〕

直筆画

左の物は講談社社長 野間惟道(当時)と佐和子(現社長)の結婚祝いに送った書画帳

1965 (昭和40) 年4月

〔화첩〕

자필의 그림

왼쪽은 코단샤 사장 노마 코레미치 (당시)와 사와코 (현 사장)의 결혼축하로 보낸 화첩

1965 (쇼와 40) 년 4월

〔直筆色紙〕

仏頭図

〔자필 색종이〕

불두도

②

〔書画道具一式〕

筆・墨・硯

〔서화도구 세트〕

붓・묵・벼루

〔絵の道具一式〕

水彩絵の具、パステル

〔그림도구 세트〕

수채화 그림 물감, 파스텔

〔愛用の帽子〕

海外取材旅行中に購入したもの。国内旅行では、ほとんど帽子はかぶらなかったという

〔애용 모자〕

해외 취재여행중 구입한 것. 국내 여행때는 거의 모자를 쓰지 않았다고 한다

[니콘F3 清張スペシャル]

Nikon F3・レンズ

視力が低下した清張がメーカーに改造を依頼した特注品。

ファインダーに表示される情報を、カメラ上部に取り付けた液晶に表示する。

[니콘 F3세이초 스페셜]

Nikon F3・렌즈

시력이 떨어진 세이초가 메이커에 개조를 의뢰한 특수품.

파인더에 표시된 정보를 카메라 상부에 설치한 액정에 표시함.

[取材旅行用の鞆]

[취재여행용 가방]

④ 「밖으로」 마츠모토 세이초 카메라의 눈

카메라는 원래 좋아했습니다만, 본격적으로 사진을 시작한 것은 작가가 된 이후부터인데 소설의 무대가 된 장소는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성이 풀리지 않는 성격이었습니다. 취재 여행에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애용 카메라를 들고 필름도 충분히 준비하는 등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여행으로부터 돌아오면 2, 3일 동안이나 사진정리를 하면서 찍은 사진을 보고는 만족해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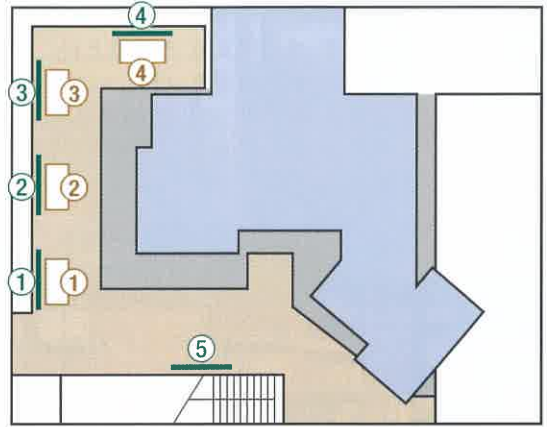
마츠모토 나요 1994년 6월

작가가 된 이후 마츠모토 세이초에게 「밖」이란 모두 창작의 취재 대상이었다.

● 전시사진은 모두 마츠모토 세이초 자신이 촬영한 것

スイス	스위스	インド	인도
ドイツ	독일	中華人民共和国	중화인민공화국
アラスカ	알래스카	マレーシア	말레이시아
オーストリア	오스트리아	イラン	이란
チェコスロバキア	체코슬로바키아	トルコ	터키
フランス	프랑스	アイルランド	아일랜드
イギリス	영국	キューバ	쿠바
イタリア	이탈리아	ベトナム	베트남
オランダ	네덜란드		

2F



① 고대사 자료

「나는「골동」에는 흥미가 없다. 단 고대사 관계의 책을 쓰다보면 실물을 언제라도 만질 수 있는 곳에 두고 싶어지는 법이다. (중략) 이것은 나의 자료참고품이다」(「세이초 일기」로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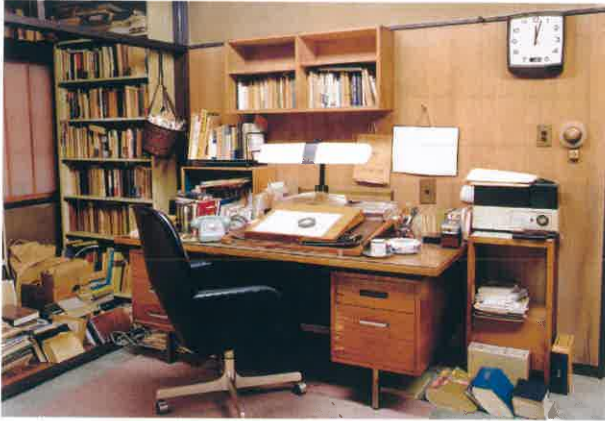
② 절필

1990년부터 주간지에 연재한 「신들의 난심」과 1991년부터의 「에도기담 코슈 영악당」은 마츠모토 세이초가 병으로 자리에 누게 되면서 미완으로 끝났다. 책상 위에는 절필이 된 「코슈영악당」이 남아 있었다. 「신들의 난심」은 「쇼와사 발굴」취재중에 얻은 소재를 언젠가 작품화하려고 20년 이상 구상해 온 작가의 창조력과 통찰력이 만들어 낸 만년의 대작이다.

③ 퇴고의 과정

책을 간행할 때는 잡지의 스크랩을 원고로 재차 가필 교정작업을 했다. 보통 재교정으로 완료했으나 「고대 탐구」에서는 무려 6차례나 교정을 했다. 이상적으로 보일 정도로 고집했다. 자료의 적절한 인용에 신경을 쓰고 문장 다듬기를 거듭하여 보다 명확한 자신의 논리를 정리해 나간 것이다.

④ 서재



시계

서거한 날(1992년 8월 4일)부터 우연히도 움직임을 멈춘 시계.

스케줄표

외부와의 예정을 메모한 행동 예정표. 병으로 쓰러진 92년 4월 그대로.

책상

1972년, 「쇼와사 발굴」 완성기념으로 출판사로부터 받은 책상을 평생 사용했다.

담배꽂초로 탄 흔적

체인 스모커였던 세이초. 집필중에는 담배 불을 끄는 것도 잊을 만큼 열중했다. 책상 주변이나 마루의 카페트에는 많은 담배꽂초로 탄 자국을 볼 수 있다.



[전시품]

①

[彩陶]

彩陶双肩耳壺 馬廠類型(紀元前2500年頃)
コレクション

[채색 도자기]

채도쌍견이병 마창유형(彩陶双肩耳壺 馬廠類型)(기원전 2500년경)
컬렉션

[小物]

蓮紋瓦・彩陶
コレクション

[소품]

연꽃기와・채색 도자기
컬렉션

[仏陀像頭部]

化粧漆喰(ガンダーラ、2~4世紀)
コレクション

[불상 머리부분]

소석회미장(간다라, 2~4세기)
컬렉션

[裝飾品]

金製
コレクション

[장식품]

금제
컬렉션



[銅貨・青銅小物]

上右: 銅貨「古円法」(春秋戦国時代)
上中: 銅貨「方足布」(春秋戦国時代)
上左: 銅貨「半両貨」
下右: 銅鈴(漢時代)
下左: 銅貨「方首刀」(春秋戦国時代)
コレクション

[동화·청동 소품]

상 우측: 동화「고원법」(춘추전국시대)
상 중간: 동화「방족포」(춘추전국시대)
상 좌측: 동화「반량전」
하 우측: 동령(한시대)
하 좌측: 동화「방수도」(춘추전국시대)
컬렉션

[古鏡]

盤龍鏡(三国時代)
コレクション

[고경]

반룡경(삼국시대)
컬렉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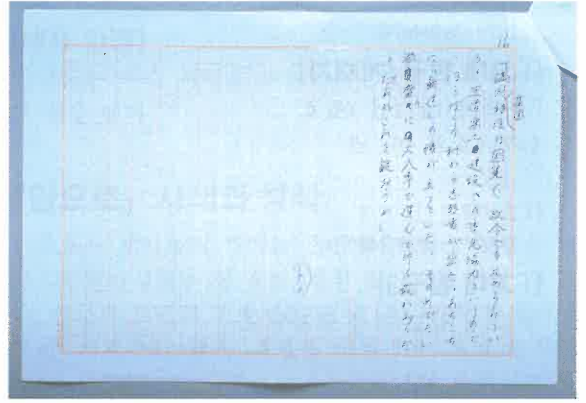
[古鏡]

獸紋縁方規矩鏡(後漢時代初期)
コレクション

[고경]

수문연방격규거경(후한시대 초기)
컬렉션

1992(헤세이4) 년



[[「神々の乱心」]]

「週刊文春」1992年5月21日号
連載105回で未完となった
1992(平成4)年

[[「신들의 난심」]]

「주간 문춘」1992년 5월 21일호
연재 105회 미완으로 끝났다
1992(헤세이 4) 년

[[「神々の乱心」]]

直筆題字
1990(平成2)年

[[「신들의 난심」]]

친필 제목
1990(헤세이2) 년

[[「神々の乱心」]]

創作ノート複製

[[「신들의 난심」]]

창작노트 복제

③

[[「古代探求」]]

原稿

[[「고대 탐구」]]

원고

② [[「江戸綺談 甲州霊獄党」]]

原稿(絶筆)
1992(平成4)年

[[「에도기담 코슈영악당」]]

원고(절필)
1992(헤세이4) 년

[[「神々の乱心」]]

原稿(絶筆)
1992(平成4)年

[[「신들의 난심」]]

원고(절필)

[[「古代探求」掲載誌]

「文學界」1971年1月号
1971(昭和46)年

[[「고대 탐구」게재지]

「문학계」1971년 1월호
1971(쇼와 46)년

[[「古代探求」]

初校ゲラ~最終念校ゲラ

[[「고대 탐구」]

첫 교정 원고~최종 교정원고

[[『古代探求』]

初版本
1974(昭和49)年

[[「고대 탐구」]

초판본
1974(쇼와 49)년

④

[[文具]

[[문방구]

[[愛用の万年筆]

モンブラン製
書き味にこだわり、何本もの万年筆を使用した

[[애용 만년필]

몽블랑제
사용시 펜촉의 느낌을 중요시하여 여러개의 만년필
을 사용했다

[[腕時計]

SEIKO製

[[손목시계]

SEIKO제

[[読書用ルーペ]

Nikon 読書用ルーペ8D

[[독서용 확대렌즈]

Nikon 독서용 확대렌즈 8D

[[愛用のメガネ]

晩年左目は視力が衰え、ほとんど右目だけで仕事をしていた

[[애용 안경]

만년에는 좌측 시력을 거의 잃은 상태로 우측눈만으로 일을 했다

⑤ 「안으로」 사색과 창작

마즈모토 세이초의 생애는 전반의 「탁하고 어두운 반생」과 작가생활을 한 후반, 거의 절반으로 나눌 수 있다. 빈궁과 고난의 전반생은 세상 「밖」과의 투쟁이었으며, 이로부터 얻은 자질을 바탕으로 마치 창작의 「데몬(악마)」이 사주하고 있는 것처럼 전력으로 질주한 후반생은 「내부」인 자신의 정신과의 거대한 투쟁이었다.

마지막 순간까지 가족까지도 들어가기를 어려워했던 사색과 창작의 공간. 「안」을 향한 투쟁의 장소였다.

● 「내게는 즐거운 청춘이란 한번도 없었다. 탁하고 어두운 반생이었다」... 「반생의 기」

● 마즈모토 세이초는 에세이 「홀러가는 일력」에서 모리 오가이의 왕성한 창작 의욕을 가리켜 「그는 데몬을 업고 다니는 것처럼 보였다」라고 했다.



개관시간

오전 9시 30분 ~ 오후 6시
(단, 입관은 오후 5시 30분까지)

관람료

일 반	어 른	600엔
	중고생	360엔
	초등학생	240엔
단 체 (30명이상)		
	어 른	480엔
	중고생	280엔
	초등학생	190엔

MATSUMOTO SEICHO MEMORIAL MUSEUM

松本清張記念館

〒803-0813 기타큐슈시 코쿠라 기타구 조나이 2-3
TEL.093-582-2761 FAX.093-562-2303